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NO. 412 / ANSAN CITY NEWSPAPER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⑥ blog.naver.com/cityansan
⑤ facebook.com/ansancity3
④ twitter.com/ansancityhall
⑤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1월 27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2016. 01. 27



영웅의
경우

영웅 이야기 첫번째 # 소방관

“무모하지 않나요?”
“당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나요?”

사람들은 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소방관으로 사는 이유입니다.

한 젊은 소방관이 쓴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소방관이 우리들의 영웅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찾을 필요가 있을까?

안산소방서
개서 30년만에 처음으로
화재사망자 ZERO!
안전한 안산!
새로운 30년을 열겠습니다.

사진제공 _ 서울소방본부



가정을 지키는 따뜻한 부서

“여성이 많아 사무실 분위기도 좋아요”

집안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려면 수입과 지출을 파악한 후 면밀히 계획하고 꼼꼼히 따진 후 짜임새 있게 소비를 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따져 봐야 한다. 또한, 예기치 않은 일에 대비해 비상금을 챙겨두어야 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한 사람에게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한 가정의 연간 계획을 세우는 데도 많은 시간과 공이 드는데 하물며 76만 안산시민의 면면을 살펴야 하는 시의 살림살이는 어떨까.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내가 사는 곳에는 앞으로 어떤 정책이 실현되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안산시 부서는 어떤 곳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지면을 편성했다.



여성이기에, 엄마이기에 더욱 잘할 수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여성가족과 직원들. 하루일과를 마친 그들의 표정에서 따뜻함이 묻어난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안산을 위해 여성가족과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은 개인의 행복을 기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경우 스스로 권리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 부모 또는 이웃의 무관심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의 대상이 된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질 때마다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또한 여성들도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늦은 밤 혼자 길을 걸어도 두려움 없이 다니기를 갈망한다. 여성이기에 겪어야했던 인권침해도 당당히 거부한다.

아동과 여성이 마음 놓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정책 수립과 민·관·경이 연합해 참여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안산시는 지자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성인지 통계를 단독으로 제작하였고,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확대를 비롯해 시 조례 내 성차별적 조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이 밀거름되어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20개 도시 중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1월 22일 대통령상을 받았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5년간 성평등 정책기반 구축, 풍부하고 괜찮은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여성가족과는 어떤 일을 할까요.

여성가족과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아동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출산장려 프로그램 운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영주 여성정책계장은 “업무 특성상 여성들이 많이 있어서인지 사무실 분위기가 가족적입니다. 아동과 여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남성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 아동·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범죄는 사전예방이 가장 효율적이다. 안산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도시를 위해 셉테드(CPTED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건축설계) 기법을 도입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하고 침투 가능성성이 높은 창틀이나 가스배관에 특수형광페인트를 바르면 범인의 족적이 남아 범인 체포에 용이하다. 또한 셉테드 기법으로 시공되었다는 안내판을 게시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또한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체험식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적이 드문 지역이나 대중교통 미 운행구간에서 실시하는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는 많은 여성들의 호응을 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저 출산 사회에 대비한 가족 친화분위기 조성

2014년 안산시 출생아수는 5,953명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2.8% 감소한 수치다. 이중 첫째아는 2.5% 증가, 둘째아는 8.5% 감소, 셋째아 이상은 9.4% 감소했다. 안산시는 다자녀 가정 자녀에게 학자금(고등학생 60명, 대학생 20명)과 교복비(중·고등학교 신입생),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행복플러스카드(2,000세대 3,500명)를 발급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낮아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캠프, 예비결혼학교, 손주 돌보미 프로그램을 마련해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있는 안산 만들기 4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캠프, 문화캠페인, 부모자녀대화법, 가족문화 및 돌봄 나눔, 아이 돌봄, 취약·위기 가족 지원, 가족 예절 및 문화체험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하기에 더욱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가족단위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안산시에는 66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이는 전국 2위에 해당된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기초학습, 독서, 영어, 예체능활동, 문화체험, 급식제공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이혼이나 방치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아동들이 모여 사는 그룹홈에 대한 지원, 그룹홈 및 가정 위탁에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정착금 지원, 입양아동 가정에 양육수당 지원 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곳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모든 아이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 보육(교육), 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는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집 등 유관기관을 통해 취약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심사를 거친 아동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의 기초학습, 정서발달, 성장발달, 부모역량강화 등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들이라는 생각으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1:1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은미 명예기자 _ iami34@hanmail.net

대부도해양관광본부 대부개발과

로컬푸드 시범 음식점 5곳 선정 <브랜드 '섬愛자란' 확정>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먹는 농산물은 누가, 어떻게 생산하는지 알 수 없을까?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동시에 건강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로컬푸드 운동 (Local Food Movement)'이다.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 로컬푸드(Local Food)를 지역에서 소비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식품의 신선도를 극대화시키고,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안산시는 대부로컬푸드 음식점을 지정·운영해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안산 고유의 맛을거리를 제공한다.

대부해양관광본부 대부개발과는 지난 2015년 4월 충남 부여의 로컬푸드음식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후 5월부터 대부 지역먹거리 음식점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Brand Identity)를 개발해 '섬愛자란'으로 정하고, 대부지역 내 270여 음식점에 홍보·신청·심사를 거쳐 로컬푸드 시범음식점 5곳을 선정했다.

주재료의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 비중이 60% 이상이며, 주재료의 수입농산물 사용량이 10% 이하에 해당하는 업소 10곳을 선발한 후 식품 관련 학과 교수·협회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부로컬푸드 시범 음식점 5곳을 소개한다.

① 대부도 메추리섬, 쪽박섬 갯벌에서 온 '해솔낙지'

"대부도 주민인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대부도·선재도 갯

벌에서 잡아온 낙지를 들고 오시면 그날 시세에 맞춰 값을 치릅니다. 어르신들은 용돈으로 쓰시고 저희는 낙지를 잡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할까요?"

대부도에는 산낙지를 전문으로 하는 낙지전문점이 많지 않다. 사계절 낙지를 수급하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지만 '해솔낙지'는 90%이상 산낙지를 사용한다. 대부도와 영흥도의 갯벌 낙지, 영흥도에서 배로 잡아오는 낙지를 매일 경매 받아 주 재료로 사용하니 로컬푸드 시범업소로 적격이다.

30대 초중반의 부부가 운영하는 '해솔낙지'는 들어서는 입구부터 분위기가 신선하다. SNS 홍보문구와 근처 프로골퍼들의 사인을 붙여 놓은 감각이 새롭다. 연포탕을 주문하면 낙지가 들어간 파전과 샐러드가 식욕을 자극한다. 육수에 들어가는 채소도 안산농수산물시장에서 유통과정을 줄인 농산물을 구입한다. 올해부터 음식점 뒤편에 텃밭을 경작해 식재료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보(37세) 사장님은 "남해 무안낙지는 머리가 작고 다리가 길고, 대부낙지는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아요. 낙지는 유통과정에서 힘이 떨어집니다. 연포탕 육수에 낙지를 넣을 때 꿈틀거리는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육수에서 살짝 익힌 낙지는 질겨지기 전에 접시에 담아낸다. 낙지의 탱탱한 식감을 맛보는 동안 육수에 면을 넣어 끓이면 해물칼국수까지 맛보는 셈이 된다. 맑은 육수는 시원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난다. 수족관에서 꺼내 바로 손질해 내놓는 낙지덮밥도 식감이 다르다. 낙지전문점인 '해솔낙지'는 제철에는 왕새우, 꽃게, 쭈꾸미 요리도 메뉴에 오른다.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던 부부는 친정이 있어 자주 놀러왔던 대부도에 정착했다. 바다가 보이는 어린이집에서 조개를 잡으며 바닷가를 뛰놀 수 있도록



자연이라는 행복을 아이에게 선물한다. 그렇게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부부는 바다가 주는 선물을 함께 나누고 있다.

문의 : 해솔낙지(032-883-1014)
주소 : 단원구 대선로 407
신선영 명예기자_wogkhah@hanmail.net

19번 째 이야기마당 열아홉 번째

시 승격 30주년 기념, 안산 청년(JC 안산 청년회의소)과의 대화

사람중심 이야기마당 19번째 이야기가 지난 1월 21일 안산 JC 회의실에서 안산 청년과의 대화로 새해 첫 이야기 마당이 열렸다. '안산이 시 승격 30주년이 된 뜻 깊은 해이다. 안산시가 30살 건실한 청년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새해 대화는 안산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서로 나누고 청년 안산이 성숙된 청년으로서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도약을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신년 첫 번째 대화를 통해 에너지와 열정을 얻어 시에 큰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청년 안산의 발전을 위해 바라는 것이나, 개선 사항, 여러 문제들을 경험하고 느낀 점을 나누어보자'라는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의 화두로 이야기 마당이 시작됐다.

이번 이야기 마당에 참여한 안산 JC (Junior Chamber, 청년회의소)는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지도역량 개발, 지역 사회 개발, 국제와의 우호증진을 실천하는 국제민간단체이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3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안산 JC 사랑의 쌀 전달', '안산시 중학생 독서 골든벨을 올려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부 대화에서는 역점 추진 사업 내용,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에 대한 해결 방안,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노인 복지 사업 유치 등 안산시정 전반에 걸친 질문과 안산 JC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과 JC가 안산시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2부에서는 교육도시로의 이미지 제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안산 JC의 스포츠 대회에 관한 어려움, 다문화가정과 소외가정의 어린이, 몸이 불편한 어린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자활로서 운동 지원에 관한 질문 등이 이뤄졌다.

안산시 관계자는 "다자녀를 둔 젊은 부부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셋째부터 주어지는 지원금과 유아용품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 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교육복지가 이뤄지길 바라는 질문에 "안산은 상위 8위 한양대 애리카캠퍼스, 우리나라 최고 예술대학교, 일반 대학교 두 곳이 있는 도시다.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은 경기도 교육청과 안산교육지청이 관할하고 있다. 생각만큼 우리 안산의 교육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올해 안산이 혁신 교육도시로 추가 선정되었고 앞으로 더욱 발전된 교육이 이뤄지



리라 기대한다. 우리 학생들이 문화 잠재력의 도시 안산에서 창의적인 능력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해 희망찬 에너지를 나누고 젊은 청년들의 시정에 관한 진술한 이야기를 공유한 19번째 이야기 마당이 JC 36년과 시승격 30주년 기념 축하 박수를 치며 마무리됐다.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깊고 맑은 들꽃 향기를 전하는 **‘들꽃잠’**

2001년 침구 소매업으로 시작해
2005년 ‘들꽃잠’ 상표 등록
패브릭, 화장품, 식품 등
200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작지만 큰 기업의
박희연 대표를 만났다.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담은 이름 ‘들꽃잠’
‘들꽃잠’은 들꽃을 베고 잠을 잔다는 뜻으로 ‘들꽃’은 자연을, ‘잠’은 사람들의 삶을 의미한다. 박 대표는 “사람은 꿈을 꿀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과거와 미래가 섞이는 꿈속에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찾는다. 꿈은 삶을 바꿀 수 있는 무한의 열쇠”라며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철학을 브랜드 명에 담았다고 말한다. 저체온으로 각종 면역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체온을 올리며 긴장을 이완시키는 바른생활을 제안한다.

구절초의 매력에 빠지다

9개의 마디가 있고, 음력 9월 9일에 채집하여 쓰면 약효가 가장 뛰어나다는 데에서 유래한 구절초는 간장을 보호하고 눈을 맑게 하며 머리를 가쁜하게 하고 혈액순환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아랫배가 냉한 사람이나 월경 장애, 손발이 찬 사람에게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다. 또 구절초의 방향물질은 세균 번식을 억제하여 부패를 막아 준다. 두통을 없애고 숙면에 도움이 되므로 베갯속으로도 사용된다. 머리카락

이 세지 않고 탈모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생리통은 물론 배탈과 변비에도, 상처에도, 종이 슬지 않도록 책갈피로도 사용했던 구절초는 조상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만병통치약이었다. 박 대표는 우리 선조들의 슬기로운 생활 전반을 현대인의 삶에 접목시켜 제품을 개발한다.

구절초를 테마로 한 제품들

‘들꽃잠’의 대표상품은 숙면베개와 짬질팩이다. 구절초황토베개는 구절초, 천궁, 당귀 등 한약재와 메밀로 속을 채우고 천연황토염색을 한 면 100%의 커버로 제작한 숙면베개로 발명특허를 받았다. 구절초와 한약재의 은은한 향과 기운이 잠을 자는 동안 피부와 호흡기관을 통해 스며들어 아로마테라피 효능을 발휘한다. 또, 기존의 안대가 빛을 차단하는 수단이라면, 들꽃잠의 눈베개(Eye Pillow)는 직접적인 눈의 피로감을 개선하고, 적당한 무게감으로 눈의 압력을 떨어트려주고 황토천으로 눈의 열을 내려주며 깊은 숙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다. 눈베개 또한 발명특허 제품이다. 구절초환은 내성 없는 섬유질 덩어리로 생리통에 아주 좋다. 바디용품, 치약 등도 생산한다.

궁이찜질팩은 아궁이에 불을 지어 먹던 시절에는 없던 부인병이 현대인들에게 빈번한 것에 착안해 방석 형태로 고안해낸 제품이다.

경험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기업

4명으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 정직원 14명, 보조직원 4명으로 연매출 12억을 올리는 박희연 대표는 고객과 경험을 나누며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남고자 한다. 뉴코아안산점, 인사동 쌈지길에 직영매장을 갖고 있으며, 인근 시흥에는 ‘들꽃잠’의 제품을 체험하는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힐링펜션 ‘흙이랑별’을 운영하기 위해 2시간 여 거리의 강원도 홍천으로 출퇴근을 한다. 자녀들이 앓던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인 아토피 질환을 고치기 위해 알게 된 지식이 사업으로 연결되었고, 건강해진 후 자존감을 되찾은 아이들을 보면서 건강을 알리는 전도사로서 역할을 하는 데 보람이 크다고 한다. 직원을 식구라 부르며 성실히 회사를 일궈낸 식구들과 함께 힐링마을을 만들어 노후를 함께 보내고 싶다는 박 대표의 진정성으로 ‘들꽃잠’이 더욱 탄탄한 브랜드로 성장하리라 믿는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천연물질 황토

‘옆에 놔두기만 해도 좋다’는 황토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황토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은 인체 깊숙이 투과되어 복사열 에너지를 발생하여 혈액순환을 돋는다. 천연찜질팩에 들어있는 붉은 팥은 따뜻한 열지압과 독소배출 효과로 뭉친 근육을 이완시켜 몸의 피로를 풀어준다. 어깨와 손발, 배에 주로 사용하는 짬질팩 이외에도 방석 형태의 아궁이찜질팩, 전신찜질팩, 황토손난로 등 종류가 다양하다. 아

문의

들꽃잠(www.dulgotzam.co.kr)

☎ 031-439-9907, 405-9907

주소 : 상록구 예술광장로 1

(1001호)



안산시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개시

한장의 회원증으로
전국 도서관에서 대출 가능

안산시 중앙도서관은 2월 1일부터 책이음 서비스를 시행 한다. 책이음 서비스는 전국 361개 도서관에서 참여하며 책과 책, 도서관과 도서관을 하나로 이를 수 있는 책이음 회원증을 발급받은 후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서 자유롭게 책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책이음 회원가입은 안산시 29개 참여 공공도서관 어디에 서나 신청 가능하며, 안산시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도서관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 안산시 공공도서관 회원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기 존 대출증을 반납한 뒤 본인이 도서관에 방문해 책이음 회원 가입을 요청하면 간단한 절차 후 즉시 발급 가능하다.

책이음 회원으로 가입하면 책이음 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안산시 공공도서관을 포함해 타 지역 참여도서관에서 최대 20권까지, 14일 동안 대출이 가능하다. 경기도내 참여도서관은 안산, 수원, 고양, 부천, 안양, 남양주, 평택, 광명, 이천, 구리,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용인, 화성, 김포, 하남, 파주, 포천 등이며 전국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 등 자세한 내용은 책이음서비스 홈페이지(libraryone.n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안산시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481-3871)로 하면 된다.

책 속의 상상! 안산의 책
범 시민 독서운동 「한 도시 한 책 읽기」

2016 '안산의 책' 읽어주세요!

♣ 선정 주제 ↪ 당신이 아름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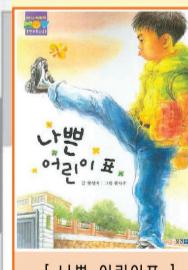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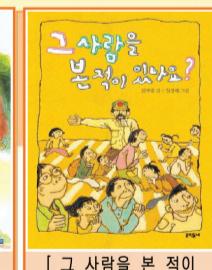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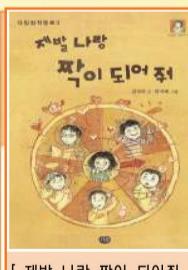
일반

[그림자 여행]
정여울 / 추수별 / 2015[그래도 괜찮은 하루]
구작가 / 예담 / 2015[배려]
한상복 / 위즈덤하우스 / 2006[동화독법]
김민웅 / 이봄 / 2014[살면서 쉬워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박광수 / 예담 / 2015

청소년

[N크리트 박스]
김혜정 / 자음과모음 / 2015[오즈의 의류수거함]
유명민 / 자음과모음 / 2014[모두 깜연]
김중미 / 창비 / 2015[택배왔습니다]
심은경 / 푸른책들 / 2015[나는 할머니와 산다]
최민경 / 나무열의자 / 2015

어린이

[나쁜 어린이표]
황선미 / 용진주니어 / 2007[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김려령 / 문학동네 / 2011[제발 나랑 짹이 되어줘]
김리리 / 다림 / 2013[망가머리 탐정 김영서]
정은숙 / 뜨인돌아린이 / 2013[내 동생이 수상하다]
성완 / 사계절 / 2015

투표기간 2016. 1. 19.(화) ~ 1. 31.(일)

투표방법 - 현장 : 중앙, 갑골, 관산, 성포, 상록 · 단원어린이도서관
- 온라인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lib.iansan.net) > 열린공간 > 설문조사

「한 도시 한 책 읽기」란?

1998년 시애틀 공공 도서관에서 시작되어 현재 영국, 호주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서관 주도형 범 시민 독서 문화 운동입니다.



Ansan Joonggong Library

481-3866



책읽는 안산 / 1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관계를 통한 성장

아동



우리는 몇 촌일까요?

저자 문정옥 / 출판사 아이세움

친척간의 올바른 호칭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쌍둥이 남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흥미로운 여행을 다니면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 관계의 의미를 되새겨 준다. 자연스럽게 친척간의 호칭도 익힐 수 있고 동화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루해 하지 않고 예절까지 재미있게 배워나갈 수 있다.

청소년



인생의 내공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저자 김승중 / 출판사 물푸레

저자가 산업교육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경험한 15년 관계의 내공을 진솔하게 담아낸 책이다.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시장과 인생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준비해야 할 것을 조언한다. 방향성, 전문성, 설득력, 친밀감, 회복력이란 5가지 관점에서 실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준다.

성인



전달의 기술

저자 사사키 케이이치 / 출판사 한국경제신문

말을 잘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기술이다. 저자는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는 말의 법칙을 알면 목표를 90% 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 간단한 기술을 알려준다. 상대에게 어필하는 5가지 기술은 꼭 외워두면 좋을 듯하다.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2016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연 Line-up 대형 & 이색 … 명품 공연은 계속된다



1. PIANO BATTLE / 2. 로렌국립오케스트라
3.빨래 / 4.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대중성·작품성,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등으로
고객만족도 높인다**

올해 안산문화재단의 기획공연 프로그램 방향은 ‘대형’과 ‘이색’이다. 강렬하고 파격적인 최고의 명품 작품들이 안산을 찾아온다. 재단 출범 3주년을 맞는 2016년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은 물론 창조적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작공연 강화 등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루 준비해 관객만족도를 한층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지역문화 활성화의 원동력인 청소년의 관람기회를 넓히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청소년 전용 프로젝트 개발, 청소년 관람료 지원사업 ‘키움티켓’과 연계한 B성년페스티벌, 청소년맞춤공연, 문화체험학습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등이 준비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피아노 배틀’ 등 명품 공연
선보인다**

먼저 2016년 오프닝 작품으로 4월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뮤지컬로 만나게 된다. 마거릿 미첼의 동명소설에 기반을 두고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스칼렛을 사랑한 연인 레트 버틀러와 전쟁 속에 피어나는 뜨거운 사랑 이야기가 무대 위에 펼쳐진다. 또, ‘Remember Forever’를 주제로 ‘신춘음악회’가 세월호 참사의 아픈 기억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안산시민을 찾는다.

5월에는 2006년 초연 당시 올해의 예술상, 대산문학상 희곡상, 히서연극상, 올해의 연극 베스트 3에 선정된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가 무대에 오른다. 지난 2009년에는 KBS에서 4부작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

6월에는 두 명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매 라운드마다 대결하는 ‘피아노 배틀(Piano Battle)’이라는 이색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관객은 청중이자 심사위원이 되어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빛나는 연주 실력에 매료될 것이다. 또 재단 지속 사업인 ‘제6회 ASAC공연예술제’가 열린다. 지역 극단의 창작의지를 높이고 콘텐츠 활성화·자생력 강화를 위한 작품들로 구성해 시민들과의 교감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8월에는 ‘청소년음악회’와 ‘몸짓페스티벌’이 열린다. 또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아이 갓 시리즈’ 제3탄 ‘아이 갓 하모니’로 시리즈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몸짓축제는 올해는 8월로 자리를 옮겨 더욱 풍성한 레퍼토리를 선보이게 된다.

10월에는 한불수교 130주년과 안산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빅 클래식 콘서트가 펼쳐진다. 프랑스 최고 지휘자 야크 메르시에(Jacques Mercier) 음악감독이 이끄는 ‘로렌 국립오케스트라’의 최초 내한공연이 그것이다. 2014년 유럽최고의 음반상인 ‘디아파종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유럽 음악계의 보석 바이올리ニ스트 김수연과 협연할 예정이다.

더불어 2005년 초연, 10주년을 맞이한 뮤지컬 ‘빨래’가 다시 관객들을 찾는다. 교과서에도 수록된 ‘빨래’는 서울 변두리 소시민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점을 인정받아 제11회 한국뮤지컬대상 작사·극본상, 제4회 더 뮤지컬 어워즈 작사·작곡·극본상을 수상한 창작뮤지컬이다.

연말에는 지난해 창작희곡 공모작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과 레퍼토리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이다. 격년제로 시행 중인 희곡공모를 통해 재단의 창작의지를 표출하고 제작 공연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시즌프로그램으로 아침시간 주부들을 위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아침음악살롱시리즈’와 ‘송년음악회’, ‘우수연극 시리즈’ 등이 기다리고 있어 2016년 한 해도 풍성하고 다채로운 공연으로 삶의 여유를 찾게 될 것이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공연기획부(031-481-4023)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大韓 朝

金弘道



단원 김홍도 영인본 특별전 열려

안산이 낳은
천재 화가 김홍도의 45작품 전시

단원 김홍도 영인본 특별전이 오는 4월 2일까지 단원미술관 제2관에서 열린다.

이번에 열리는 특별전은 그동안 영인본관에서 상설 전시된 작품을 비롯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 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전시실 대관이 없는 기간에 안산이 낳은 천재 화가 김홍도의 작품 세계를

안산 시민들에게 선보이고자 마련된 영인본 특별 전시로 45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영인본은 원본을 사진이나 기타의 기술적 방법으로 복제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시실에서 만나게 될 영인본 원본은 국립현대박물관과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안산과 단원 김홍도

김홍도는 7~8세부터 20여 세까지 안산에서 표암 강세황선생으로부터 그림과 글 수업을 받았으며 이후 도화서 화원이 되었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천재적인 소질을 보였던 단원 김홍도는 후에 어진화가로 대성하여 그 명성을 전국에 떨쳤던 조선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우리 산수와 풍속의 서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금강산의 실제 경관을 사생하며 묘사하고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는 모습을 경쾌하게 묘사한 수지법(樹枝法)을 완성했다. 그의 산수화는 여백을 적절히 남기면서 대상을 압축하는 밀도있는 구도법과 형상을 집약해서 표현해내는 묘사력 등 높은 예술적 경지를 보여 주었다.

단원 김홍도의 작품세계

조선후기의 영·정조시대를 살며 금방이라도 땀내음이 묻어 날 듯한 서민들의 진솔한 삶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을 손에 잡힐 듯한 필치로 그려냈다. 단원은 산수와 꽃, 새, 새, 동물, 풍속화, 고사인물(故事人物), 신선, 초상화는 물론 심지어 불화에서 삽화에 이르는 온갖 종류의 그림을 다 잘 그렸다.

김홍도의 풍속화는 지금 보아도 재미있는 그림이다. 울고, 웃고, 짹그리고 등장인물이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매우 재미있는 그림이었다. 풍속화는 임금이 백성들의 생활상을 엿보는 수단이기도 했다. 보물 제527호인 단원풍속화첩 중 10여 작품을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풍속화 작품을 통해 옛날 우리나라 풍속과 생활모습을 알아 볼 수 있다.

김홍도의 산수화 배경은 당대에 유행하고 있던 남종화풍(南宗畫風)의 운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과 함께

도슨트 설명을 들어요

안산과 단원 김홍도와의 관계부터 작품 세계 등 다양한 이야기 들을 수 있다.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하루 세 번 도슨트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사전 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림 속 이야기와 세밀하게 표현된 곳까지 들여다 볼 수 있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풍속화로 떠나는 그림세계 감상활동지'가 준비되어 있어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도슨트(docent)는 전시물을 비롯해 작가 등에 대한 설명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사람

☞ 문의 : 단원미술관(031-481-0503~4)
이선희 명예기자 _ iamyou70@hanmail.net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_ econ ojin@naver.com

영인본 전시연계 체험 프로그램

판화체험

평일·주말 오후 3~4시 /

단원김홍도 풍속화 판화체험

단원미술관 활동지 및 스템프체험(상시체험)

단원미술관 활동지체험

(단원김홍도퀴즈, 나도김홍도처럼, 스템프 등)



MADE IN 숲

2016년 한 해 동안

숲의 이야기를 연재한다.

겨울 숲, 사색하기 좋은 숲, 운동하기 좋은 숲,

데이트하기 좋은 숲, 가족나들이 하기 좋은 숲,

힐링하기 좋은 숲, 생태의 숲, 아파트 숲 등

숲의 다양한 기능과 추억을 담는다.

그 첫 회로 호수공원과 그 주변 일대의

겨울 서정을 담았다.



FOREST IN WINTER

도심 한가운데 ‘더불어 숲’ 겨울 호수공원을 걷다

자고 일어나니 눈이 쌓였다. 전날 낮에는 함박눈이 하염없이 내렸다. 빈 나뭇가지에, 인적 없는 도로에 살포시 내려앉아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지치고 힘든 삶의 생채기들이 새하얀 눈으로 덮여 흔적 없이 사라졌다. 입가에 미소가 피어나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콘크리트 바닥을 벗어나 땅 위에 쌓인 눈을 밟는다. 중앙도서관과 호수마을아파트(초지동) 사이 녹지 완충지에는 작은 숲을 만들고 돌담길을 만들었다. 화정천을 왼쪽으로 끼고 한적한 돌담길을 걸으니 아득한 시골 산길을 걷는 듯 향기롭다. 호수공원 산책길을 걷는다. 잎을 떨군 빈 가지에 햇빛이 걸리고 잔잔한 바람이 걸터앉는다.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 지난봄과 가을에 피어난 꽃과 싱그러웠던 나뭇잎까지 모두 다 품고서 조용히 겨울을 나고 있는 나무. 함께 왔던 이웃, 함께 나눈 이야기,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조용히 길을 따라 나선다.

누군가에게 나누어준 마음 한 자락을 기억한다. 누군가가 내어 준 마음 한 자락에 기대어 쉴 수 있었음을 기억한다. 빈 가지 끝마다 까치가 앉았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며 친구 곁을 지키고 있다.

물을 뺀 호수에도 눈이 쌓였다. 그 넓이와 깊이를 가능해보며 호수의 고요함을 생각해본다. 담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함과 비워 내 욕심을 줄여야 하는 것은 자연이나 인간의 삶이나 마찬가지

인 듯하다.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한, 더 많은 것을 담기 위한 가장 적절하고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런지.

호수 근처에 있는 작은 동산에 올라본다. 눈이 쌓인 나무 계단에 밟고 지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다. 동산 위쪽으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햇빛에 계단이 눈부시다. 계단을 오르며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꿈꿔본다. 동산에 서서 내려다보니 고즈넉하지만 평화롭다. 하얀 눈밭을 지키는 푸르른 소나무 군락과 줄을 맞춰 선 나무들, 구불구불 나타나는 산책로가 마음에 확 들어온다.

호수공원은 접근이 용이하다. 푸르지오 1차와 레이크빌, 푸르지오 6~9차, 호수마을아파트, 호수대림아파트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호수공원은 어느 방향에서든지 접근할 수 있어 편리하다. 주택단지로 둘러싸인 도심 속 공원으로 삶의 활력과 에너지 충전을 담당하는 명소가 되었다.

매일 호수공원을 산책한다는 이웃, 걷는 동안 이런저런 감정들이 편안해져서 몸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지인, 눈썰매를 끌고 달려나온 동네 꼬마들, 맨발로 눈밭을 뛰어다니는 강아지와 주인 식구들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박힌다.

지난 가을에 안양에 사는 20년 지기 친구를 만났다. 안산 호수공원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서 지인들과 안산 호수공원을 방문했단다. 종양역에서 내려 안산 문화광장을 지나 호수공원을

다녀왔는데 멋졌다고 했다. 친구 입에서 들려오는 안산의 지역 이름들이 너무나 반갑고 뿌듯했다.

이름이 알려진 다른 지역의 호수공원이 몇 곳 있다. 안산에 있는 호수공원도 그 유명세에 합류해 안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즐겨찾는 공원이 되기를 바라본다. 나무가 우거지고 산새들이 지저귀며 화정천에 맑은 물이 흐르는 ‘더불어 숲’이 되기를… 그래서 이곳과 더불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기를 또한 바란다.

겨울 숲을 거닌다. 유채색이던 모든 것들이 무채색이 되었다. 또 다른 준비를 위해 비워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과 조용하고 담담함의 아름다움을, 보이지 않던 과거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겸허한 시간이었다. 빈 가지로 높은 하늘을 우러르며 햇빛을 바라고 바람을 부르며 그렇게 씩씩하게 겨울을 나고 있다.

『‘더불어 숲’은 고(故) 신영복 교수의 「더불어 숲」 책 이름에서 가져옴.』

이선희 명예기자 _ iamyou70@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학생들, 2015 안산 UCC 공모전에서 실력 뽐내

‘런닝맨 in 안산’으로 최우수상 수상

안산시는 시민들이
직접 안산의 생생한 모습을 UCC로
소통하고 홍보함으로써 안산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
매년 UCC 공모를 열어왔다.
‘내 마음의 보석 안산’이라는 주제의
2015 안산 UCC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런닝맨 in 안산’ 팀을 만났다.

Q. 안산 UCC 공모에 참여한 동기와 수상소감은?

A. 교내 영상동아리 MPEG 내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동아리 학생들이 세 팀으로 나눠 각기 다른 분야에 참여했구요, 저희 팀(이예빈, 정연규, 손정민, 문경일, 김현진)만 수상을 하게 되었어요. 안산 UCC 공모에서 상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기뻐요. 다른 수상 팀들의 작품 모두가 저희 보다 월등하게 좋았는데, 어떻게 저희가 수상권에 올랐는지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UCC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것은?

A. 온 국민이 좋아하는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처럼 미션을 수행하면서 안산을 대표하는 다문화거리와 다양한 세계 음식을 소개하면서 안산에 대해 알리고 싶었습니다.

다문화거리에서 볼 수 있는 중국 간식 ‘월병’과 인도 전통음식 ‘탄두리치킨’과 ‘라씨’를 찾는 미션이었죠. 외국인노동자를 무시하는 시선과 안산역 주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싶었어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접해볼 수 있는 곳으로 발상을 전환하기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실제로 인도 음식점 사장님은 서비스도 주시면서 정말 친절했고, 월병 파는 아주머니도 인정 넘치는 동네 아주머니와 다르지 않았어요.

Q. 팀원들이 안산 시민이 아니라 안산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A.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는 전국 단위에서 모집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서울, 시흥 등 다른 지역에서 사는 팀원들은 안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다행히 정민이가 안산에 살고 있어서 사전조사와 답사를 하고 미션을 할 만한 곳을 정하기 전에 음식점도 미리 가보면서 영상 제작에 많은 역할을 했어요. 촬영기간이 축제기간과 겹쳐 사람들이 많아 촬영하기 조금 힘들었지만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Q. 이번 UCC 공모전 참여 경력이 진학과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

A. 학과마다 조금씩 진로가 달라요. 디지털컨텐츠과, e-비지니스과를 선택한 우리들은 디자인, 광고영상, 방송 영상에 대해 배웁니다. 영상 관련된 직업인 방송국 PD,

촬영기사, 편집, 기획, 컴퓨터그래픽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팀은 1, 2학년이라서 조금 막연한 꿈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이번에 영상을 제작하면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아 뿌듯해요. 용기도 생기고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Q. 상금이 꽤 많던데 어떻게 쓸 건지…

A. 상금으로 70만 원을 받았어요. 우리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고기뷔페에 다녀왔어요. 상금 일부는 동아리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 데 보태려고 합니다. 집이 멀어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목소리만 출연한 친구가 있지만 나머지는 그 친구와 균등하게 나눌 거예요. 평소에 자주 보지 못했던 영화도 보고, 자기계발을 위해 책도 사 보면서 영상 관련한 일을 경험해 보려구요.

학생들은 방학인데도
보충수업을 신청해 야간자습을
해야한다며 서둘러 인터뷰를 마쳤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학생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교정에 서서 밤하늘의 달을 바라본다.
달빛이 교정의 어둠을 밝히고 있다.

신선영 명예기자 _woghkah@hanmail.net



왼쪽부터 김현진, 손정민, 이예빈, 문경일, 정연규

제2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5일 개회

2016년 업무보고 ·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보고 등 안건 처리



새해 첫 임시회인 제226회 안산시의회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시의회(의장 성준모)는 19일 의회 제2상 임위원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25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현)를 열어 제226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등을 확정했다.

회의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는 25일과 29일 두 차례 개최되며, 상임위원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 기간 동안 의회는 시가 제출한 조례안 4 건을 비롯해 지난 224회 정례회에서 보류

됐던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2016년도 의회 업무보고'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보고' 등 일반 안건 5건도 심의하게 된다.

특히 2016년 업무보고의 경우 안산시가 올 한해 수행할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가 이뤄져 시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회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보고도 시 산하단체장 인사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B r a v o A n s a n

브라보안산

[시민뉴스] 배너등록 <>

안산시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재생" 외국 전문가 초청 강연

2016년 안산시 주민농장 분양 안내

[인기뉴스]

- 1. 다문화 친구들과 시민
이 함께하는' 제...
- 2. 연산 원로작가 4인의
예술 카페로시...

[한산뉴스]

- 안산시 쌈지공원 조성, 도심 속 자전거...
- 안산시 풍물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증발...
- 안산시 풍물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증발...

NAVER

안산소식

검색

통합검색 블로그 카페 지식IN 이미지 동영상 어학사전 뉴스 더보기

파워링크 '안산소식' 관련 광고입니다. ⓘ

클릭초이스 등록 >

안산시 시정방송국 batv.iansan.net

안산, 안산시청, 안산시 인터넷방송국

안산소식 e-브라보안산 www.bravoansan.net

안산시 각종 정보 및 소식을 전달하는 공식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식지에 신지 못하는 알차고 다양한 시정홍보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e-브라보안산'을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소식지는 e-book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브라보안산 주소 : www.bravoansan.net

네이버 검색창에 안산소식, 안산뉴스를 검색해보세요.



아리송한 맞춤법을 알려주는
'브라보 Talk'

— □ ×

이제 방학도 떨마 날지 않았는데. 방학도 숙제는 다 했니?

오후 02:10

얼마, 우리 반은 선생님이 방학동안 충분히 놀고, 쉬라고 숙제 안내주셨다니까요.

오후 02:10

이구, 좋겠다. 노는 거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신났네. 그래도 부족한 부분 보급도 하고 예습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오후 02:12

방학이니까 떨심히 놀고 개학하면 떨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게 학생의 **역할**이잖아요.

오후 02:10

이 네석이 방학이라고 놀기만 한 줄 알았더니 제법 철든 소리를 하네. 그래 네가 한 말 책임지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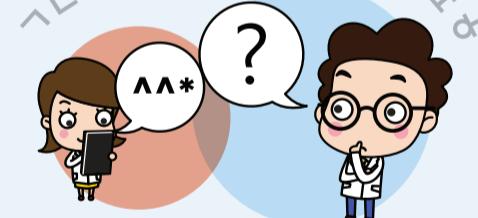
오후 02:12

그럼요. 떨심히 할게요. 하지만 절라는 장점 못해요.

오후 02:10

전송

(,) (,) (,) | ()



사죽은 '**사족**'라고 써야 맞습니다.

'사족'은 무슨 일에 반하거나 혹하여 꼼짝 못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친구 말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 / 영화라면 사족을 못 쓰고 캐릭터다.

역활은 '**역할**'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역할'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를 말합니다.

예》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히 / 발표회에서 인어공주 역할을 맡았다

김은미 명예기자 _iam34@hanmail.net

뉴스 미란다 원칙

브라보안산에 게재된 내용중
문의사항, 반론, 정정 요청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당부서 및 안산시청 공보관실(031-481-204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심폐소생술, 지진체험, 화재진압 등
다양한 실습 가능
”

위험한 재난 상황을 대비해 이론교육뿐 아니라 실전훈련까지 체험할 수 있는 곳, 안산시 민방위교육장에서 운영하는 재난체험장이 인기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전문 강사들의 자세한 안내로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운다. 심폐소생술 등 평소에 잘 알지 못했거나 이론으로만 알던 것들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고, 지진강풍 체험실 등도 마련돼 있어 재난상황을 실전처럼 체험하며 모의훈련도 할 수 있다. 시설을 제대로 갖춘 재난체험 교육장이 몇 군데 없어, 안산지역 단체와 개인 신청자는 물론 타시 방문객도 이곳을 많이 찾는다.

겨울방학을 맞아 재난체험 교육이 한창 바쁘게 운영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 2층을 찾았다. 마침 선부동 조은지역아동 센터에서 단체로 신청한 학생들 20여 명이 교육 중이었다.

전문강사들이 스크린을 이용해 행동요령을 자세히 설명한 후, 체험실로 이동해 실습훈련을 했다. 화재탈출체험실에선 한 사람씩 몸을 낮춘 자세로 들어가, 어둡고 좁은 공간을 장애물을 통과해 걸어가며 화재 발생시 피난하는 요령을 배운다. 이때 대기자들은 스크린을 통해 앞선 교육생들이 체험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다. 두 번째, 응급처치체험실은 마네킹을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곳이다. 정확한 지점을 찾아 흉부를 압박하고, 기도를 열어 인공호흡을 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워, 강사들이 한 명씩 자세를 교정해주면서 실습을 진행했다.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훈련이란 말을 듣고, 어느새 아이들도 진지해진다. 3층 화재진압체험실은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5명씩 소화기를 잡고, 스크린 화면에 불이 나는 지점을 소화기로 분사하면 화재진압 성과를 스크린에서 바로 확인해볼 있어, 아이들이 큰 흥미를 느꼈다. 지진강풍체험실은 거실모형 구조물에 4명씩 탑승해, 지진을 직접 체험하며 행동요령을 실습할 수 있는 곳이다. 어린이들은 땅이 흔들리는 지진 체험 자체를 즐거워

하면서도, 미리 숙지했던 요령들을 꼼꼼히 체크하며 체험했다. 두꺼비집 퍼즐을 끄고,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후, 방석으로 머리를 감싼 채 식탁아래에 올망졸망 모여 있는 모습이 꽤 다부져보였다.

유성주 강사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시민 비율이 미국 70%, 일본 30%인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많이 늘어났음에도 아직 9%정도밖에 안 된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주 강사는 “재난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뿐 아니라 실전교육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재난체험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난체험장은 민방위 교육이 없는 1월, 2월, 3월, 7월, 12월,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미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1회 10명 이상 최대 9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안산시 민방위교육장 재난체험장 홈페이지 <https://cdedu.iansan.net>
송보림 명예기자 _treehelper@naver.com

도심 속의 청학동에서
한복 입고 예절 배워요

안산행복예절관,
겨울방학예절학당 열어

겨울방학예절학당이 지난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안산행복예절관에서 열렸다. 이번 예절학당에 참가한 초등학교 50여 명의 학생들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했다.

입소식을 하고 첫 프로그램으로 행복서당이 열렸다. 행복서당에서는 동몽선습(童蒙先習)으로 사람의 도리를 깨우치는 오륜(五倫)을 살펴보고 외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나의 살던 고향’의 노래에 동몽선습의 내용을 입혀 부르며 쉽게 익히도록 했다. 마지막 날에는 책자를 보지 않고 읊조리

함께 흥겹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예절학당 4일 동안 한복을 입고 수업을 했는데, 한복 입는 순서와 옷고름 매기 등 한복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통다도 수업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며 차를 나누는 예절을 배우고, 다화(茶花)꽃이와 티푸드 만들기(샌드위치) 체험도 했다. 예쁜 다화꽃이를 들고 활짝 웃는 모습이 꽃처럼 예뻤고, 스스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재미와 흥미로운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통성, 역사성, 고유성, 지속성을 지닌 전통놀이에 대해 알아보고 장치기 놀이와 엽전제기 만들기와 제기 차기를 해보았다. 전통 놀이를 통해 집중력과 협동심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은 세책례를 치렀다. 세책례는 가르침을 받은 스승에게 보은의 마음으로 차와 다식, 꽃과 배운 책을 올리고 큰 절로 스승에게 감사의 예를 올리는 의식이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예를 올리고 수료증을 받았다. 이초윤 학생(2학년 송호초)과 김예빈 학생(5학년, 호원초)은 “엄마가 신청해줘서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어요.”라며 어느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느냐는 질문에 “차 맛을 알게 돼서 다도 체험이 가장 즐거웠어요.”라고 말했다.

부모님을 위한 틈새 특강도 열렸다. 틈새 특강은 자녀들을 데리고 와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관대한 엄마가 되자’라는 주제의 특강, 복조리 만들기, 전통다도와 예절, 제기 만들기 등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틈새 특강을 들은 학부모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할 뻔 했는데 부모들까지 신경 써주는 예절학당 수업이 만족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문의 : 안산행복예절관(031-475-0323)
이선희 명예기자 _iamyou70@hanmail.net



“우리가 함께 살아낼 수 있어, 다행이에요”
**세월호 형제자매들의 이모,
‘우리함께’ 박성현 사무국장을 만나다**



고잔동 오래된 빌라에 토끼굴처럼 숨어있는 ‘우리함께’ 사무실은 고요하고 평안했다. ‘우리함께’를 가족, 온풍기, 이불, 친구라고 표현했던 세월호 가족들의 말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았다. 그곳을 지키는 사회복지사들의 진심과 배려를 작은 소품과 숨소리에서까지 느낄 수 있었다. 아무도 돌보지 못했던 유가족 형제자매들의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어른 역할을 하며, 안산 지역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도 치열하게 고민하는 박성현 사무국장을 만났다.

안산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는 어떤 곳인가?

처음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 10개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유가족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 뒤 7월, 본격적으로 10개 복지관이 협약을 맺고, 복지관마다 사람을 한명씩 파견해서 가족지원팀, 공동체회복팀, 사무국을 구성해 ‘우리함께’란 이름으로 유기적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가족들과 관계 맺으며 개인상담, 그룹상담도 진행하고, 이웃들과 이해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도 하고 있어요. 재작년 11월에는 희생자 형제자매들과 이야기 나누다가 가족들이 마음 놓고 울고 웃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사무실이 아니라 주택가 안에 있는 가정집을 임대하게 됐죠.

형제자매 아이들과 함께하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지?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있으면, 제가 대가족의 이모나 큰언니쯤 되는 거 같아요. 아이들이 저희한테 밥챙겨먹었냐고, 잠은 잘 자냐고 물어보고 그래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월호 참사가 지극히 아프고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는 살아내지는 상황인거 같고요. 언젠가 쉬는 날이었는데, 아이들이 와 달라는 요청에 갔더니, 아이들이 ‘8억이면 많이 받았네’ 같은 말들을 지인들에게 유난히 많이 들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일베들이 하는 그런 정신없는 말들보다 가까운 지인들이 내뱉는 말들에 상처를 더 많이 받거든요. 아이가 평평 울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마음을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최근 졸업식 때도 아이들한테 ‘○○야, 힘내… 톡탁토닥’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울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는 답 문자를 보면서, 우리가 실선처럼 연결돼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죠. 사실 형제자매 아이들은 생존자 아이들을 먼저 걱정해요.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먼저 생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먼저 되물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어른들이 배워야 할 게 많다는 생각을 해요.

형제자매들은 많이 괜찮아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 일을 하고 한 1년쯤 지나, 한 사회복지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담 중이던 23살 친구가 은둔형 외톨이였는데, 인터뷰를 하며 그 친구가 화성씨랜드 생존아이였다는 걸 알았대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관계를 하는 게 힘든 거죠. 그렇게 보면 형제자매에게 남겨져 있는 상흔이 1년 안에 안정됐다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안산시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그냥 자식 잊은 부모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아직 모르는 부모들로 봐주셨으면 해요. 만약 그게 내 아이였다면, 내 동생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공감하는 마음으로 더 아픈 쪽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언젠가 넘어졌을 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저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형태의 무언가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망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사회적 안정망이 되지 않을까. ‘우리함께’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공공성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녹아나게 할까, 고민하게 돼요.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2016년 첫 일자리박람회 개최 구인·구직 열기 뜨거워

1월 19일 시청 대회의실서
40개 업체 500명 구직자와 만나

2016년 들어 처음 열린 919일자리박람회가 적합한 인재를 구하려는 구인업체와 원하는 곳에 일자리를 마련하려는 구직자들의 관심이 맞물리면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지난 1월 19일 시청 민원동 2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린 취업광장에는 500명이 넘는 구직자의 발길이 이어졌다. 40개의 구인업체는 현장 즉석 면접을 통해 회사에 어울리는 직원을 뽑아 126명이 현장 채용됐다.

경력직원을 뽑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지원한 최은경(50세·선부 3동)씨는 “생산라인에서 2년 간 일한 경험이 있어 일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깝고 생산하는 제품이 무거운 부품이 아니어서 여자 몸으로 감당하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결정을 내려 3일 이내에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이력서 사진을 찍고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면서 관심 분야 기업과 면접을 치렀다. 보건소의 무료 건강체크 부스에서는 혈압, 당뇨검사로, 경기도 기술학교는 국비지원 직업훈련 과정 등을 소개하면서 박람회에 함께 했다.

안산고용센터는 구직활동 첫 단계부터 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 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장석훈 취업지원팀장은 “매달 시청과 공동으로 취업박람회를 여는데요. 현장에서 채용이 안 되신 구직자 중에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훈련도 지원하고, 구직등록 첫 단계부터 상담사가 배정돼서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끝까지 지원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919취업광장에는 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부터 연세 지긋한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의 구직자들이 모였다. 안산시 일자리센터 일자리정책과 김원재 계장은 “919취업박람회는 일자리를 찾는 분과 일할 사람을 구하는 기업 모두 서로를 탐색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며 “안산스마트허브의 만 구백여 업체와 구직자들 사이에 매월 19일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919취업박람회가 널리 알려져 구인·구직 활동을 돋고 있다.”고 말했다.

1998년도부터 시작해 매월 19일 열리는 919일자리박람회는 2015년 5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1,500여 명을 고용했다.

일자리박람회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별도의 사전접수 없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면접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구인업체는 매월 15일까지 안산일자리센터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안산일자리센터(031-481-2919)
백미란 명예기자 _ whity0218@naver.com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나와 안산의 꿈



사람도

사람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늘 노력을 하고 있다.
안산의 꿈은 뭘까? 개인에게도 건강, 가정, 관계, 사회, 자녀 등
에 관한 다양한 꿈을 소망하듯이 안산시도 각 분야의 다양한
꿈을 계획하고 이루기 위해 모두 노력할 것이다. 사람과의 소
통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비상하려하는지에 따라
'나와 코드가 잘 맞네.' 하듯이 새 보금자리를 찾아갈 때 그 지
역이 추진하는 계획들이 뭐가 있을지, 교육적으로는 어떤지,
보육, 청소년, 장년, 노년의 각 층마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궁금증을 갖게도 한다.

안산에 살면서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도서관이 많다는 것이다. 가까운 지역을 가 봐도 이렇게 곳곳에 작은 도서관이 많은 곳은 흔치가 않고, 도서관을 필두로 행사가 다양하게 이뤄지는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

도서관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하는 작은 우려도 생기지만
없어지면 안 되는 장소란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 아무리

바빠도, 한 끼의 밥을 거르거나 대체식품으로 때울 수는 있지만, 결국엔 밥을 먹어야하듯이 모두 바쁜 세상에 책 볼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든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영혼을 메마르게해 생명을 죽이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식물처럼 말이다. 다식이 아니더라도, 다독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내게 필요 한 한 권의 책을 꺼내들 수 있는 도서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다.

나에게 도서관은 병원과 같은 곳이다. 십대 때 학교 서랍 속에 숨겨놓고 친구들과 봤던 ‘하이틴 로맨스’ 시리즈는 재미와 웃음, 설렘을 갖게 만들었고, 책의 매력을 찾아 도서관을 드나들 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20대 때는 이문열, 마광수, 톨스토이에 빠지게 만들었고, 30대는 ‘나’에 대해 알고자 심리 도서를, 가끔은 우울증, 건강, 요리, 여행, 교육 등 때마다 필요한 책을 찾아 처방을 내렸다. 20대부터 궁금했지만 풀리지 않았던 나의 성격과 심리는 책을 통해 답을 찾고 인정하고 자유로움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의 말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책을 읽은 후에는 나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생각을 하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다.

안산에서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녹지와 생태의 환경이다. 안산 시민이라면 동네 곳곳마다 푸르른 공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지금도 회색빛을 지우고 초록빛으로 변해가려는 안산시를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가끔 가슴이 탁 막힐 때, 본오아파트 앞으로 펼쳐진 본오뜰은 모내기철부터 수확 때까지 도심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 펼쳐진다. 수십 개의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채소들은 어떤가! 나름 바삐 자라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생명의 절차와 함께 나의 유년시절과 부모님, 형제, 고향을 떠올린다. 차로 몇 분만 가다보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갈대 습지 공원은 조용한 동네 같다. 그들만의 동네, 그들만의 특권과 영역 속으로 사람들이 초대되어 들어간다. 빈손으로 들어가 나올 때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나온다. 끊임없이 생태와의 끈을 놓지 않고 배우며, 함께 하려는 모습이 안산시를 더욱 아름답고 빛나게 하는 것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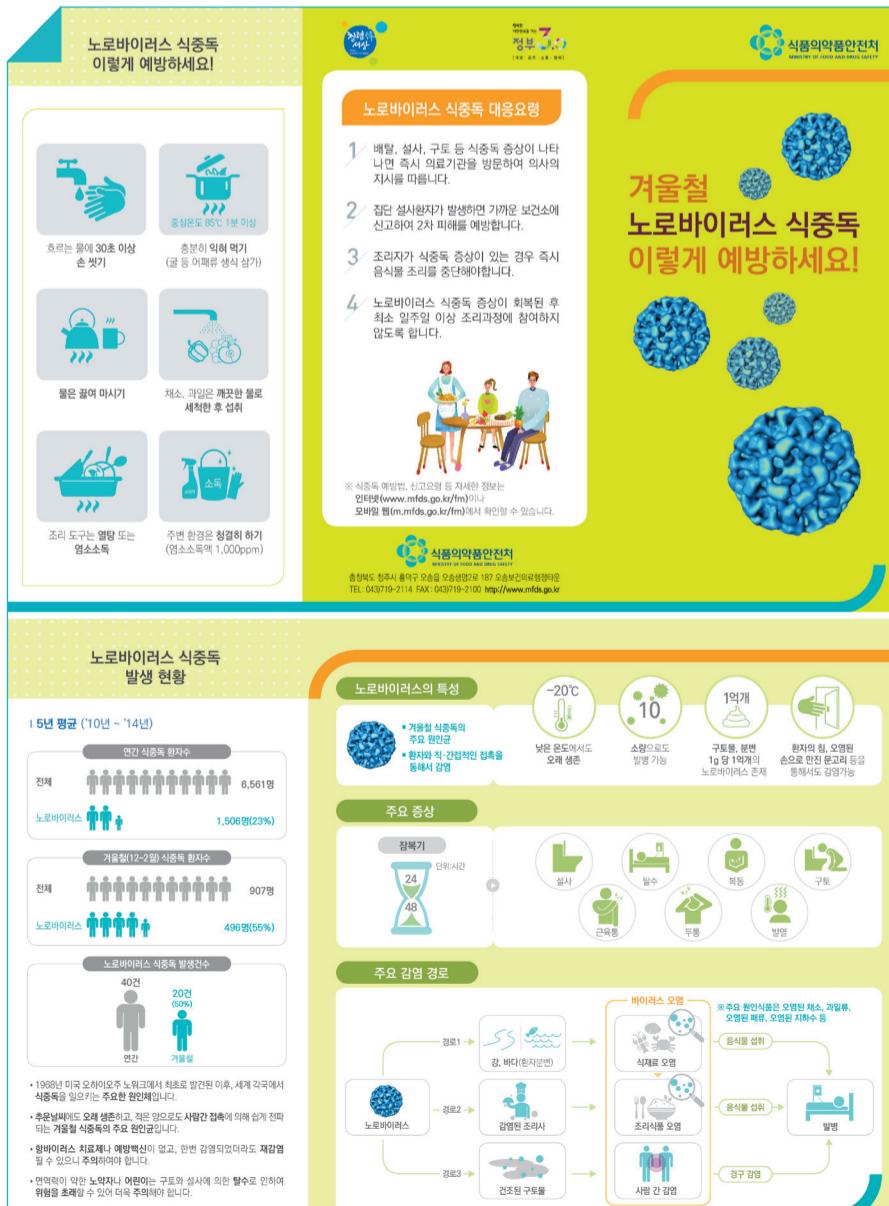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안산시의 새해 꿈이 있듯이 우리에게
도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그 꿈이 뭘까?

남연숙(상록구 본오동)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책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과일 + 채소**



* 1d로 쿠리의 한

피부 미용 효과

브로콜리에는 기미와 주근깨에 효과적인 비타민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피부의 저항력을 높여주는 베타카로티ن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성인병 예방 효과

브로콜리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작용은 우리 몸의 유해산소를 없애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 맛있는 브로콜리 고르는 방법

- 브로콜리의 봉오리(윗 부분)가 단단하고 빈 곳 없이 빼곡한 것이 좋습니다.
 - 봉오리의 가운데가 봉긋한 브로콜리가 좋습니다.
 - 줄기 부분이 변색되지 않고 싱싱한 것이 좋습니다.
 - 꽃이 피지 않은 브로콜리가 맘이 좋습니다.

* 막있는 브로콜리 영양가 높게 즐기는 방법

- 물에 넣어 데치면 비타민C 및 엽산 등의 물질이 파괴되므로
찌거나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면 영양가 높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 브로콜리를 기름에 볶거나 기름이 포함된 드레싱과 함께 즐기면
비타민A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근깨가 고민인 여성의 필수 농산물 브로콜리!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

안산시 주말농장(도시농업농장) 분양 안내

1. 안산시 주말농장 현황

농장명	위치	구좌수
계		2,894
단원농장	초지동 747 [의료시설부지]	1,855
화랑농장	초지동 666-2 [체육시설부지]	315
제2화랑농장	초지동 667 [화랑유원지내]	212
신길농장	신길동 1380외 [신길동 63블록]	512

▷ 부지 정리 후 구좌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길농장은 돌이 많고 급수시설이 없으며 흙량 부족, 배수가 원활치 않은 경작조건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 접수기간 : 2016년 2월 17일(10:00) ~ 2월 20일(18:00)(토요일 접수 가능)
- 신청방법 :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내방 접수[신청서 비치]**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산시이면서 세대주인 자
(1세대 1구좌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또는 세대주가 아닌자는 취소 처리)
- 세대주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등본(최근 1개월내 발행분), 신분증 필수지참), 등본상 가족구성원 이외 대리접수 불가

3. 분양조건

○ 분양기간 : 2016년 4월 1일 ~ 2016년 11월 30일

농장명	분양면적	임대료
단원·화랑·제2화랑농장	16.5m ² (5평)	6,420원
신길농장	66m ² (20평)	25,690원

○ 친환경농업 실천(화학비료, 농약, 비닐피복금지), "안산시 주말농장(도시농업농장) 운영 규정" 준수

○ 문의 : ☎ 031-481-3764

'안산 에너지비전 2030 선포식'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6. 2. 4.(목) 14:30 ~ 15:30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본청 민원실 2층)

○ 참석대상 :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에너지전문가, 단체, 시민

※ 안산시 에너지 정책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

○ 주요내용

- (1부) 안산 에너지 비전 2030 선포식

- 안산 에너지 비전 동영상 상영 및 추진전략 발표
- 공동실천 선언, 에너지 비전 공유를 위한 세레머니 등

- (2부) LED 등기구 및 신재생에너지 전시장 투어

- 타워형 풍력발전설비, 태양광 시설, LED 등기구 전시장

- 안산 에너지비전 및 목표

- 비전 :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안산

- 목표 : 시민 1가구 1발전소

- 전력자립도 '15년 84% → '30년 200%
- 신재생에너지 비중 '15년 7.44% → '30년 30%
- 에너지 소비 저감 50.5만TOE(에너지 수요 전망치),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51.8만TOE(전력 생산량 30%)를
통해 노후 원전 1기 대체효과 달성

○ 문의처 : 안산시 녹색에너지과(☎ 031-481-2927)

상록어린이도서관 2016년 2월 주말 영화상영

"가족과 함께 영화 관람으로 즐겁고 유익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세요"

| 주말영화상영 프로그램 |

			
2 / 06(토) 85분, 전체	2 / 13(토) 91분, 전체	2 / 20(토) 90분, 전체	2 / 27(토) 94분, 전체

안산시 감골도서관(상록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즐겁고 유익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상록어린이도서관 지하 어울림방에서 어린이들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감골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문화행사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연중 매달 주말 영화상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어린이도서관(☎ 481-3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어린이도서관 2016년 2월 주말 영화상영

"가족과 함께 영화 관람으로 즐겁고 유익한 주말 오후시간 보내세요"

| 주말영화상영 프로그램 |

			
2 / 06(토) 85분, 전체	2 / 13(토) 91분, 전체	2 / 20(토) 90분, 전체	2 / 27(토) 94분, 전체

안산시 관도서관(단원어린이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즐겁고 유익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단원어린이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어린이들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관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ansan.net>) 문화행사 및 공지사항을 통하여 연중 매달 주말 영화상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원어린이도서관(☎ 481-38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